

# 이탈리아 도심 복합주거지의 역사경관관리와 계획적 특성

## A Study on Landscape Characters of Residential Complexes through Landscape Management and Planning for Historical Areas in Italy

장 유 경\*      유 재 우\*\*  
Chang, You-Kyoung      Yoo, Jae-W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for historical areas in Italy and suggest a planning directions and consideration points for historic landscape in residential complex.

This study is consisted of four areas as followings: The first part, as a theoretical study, review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part, the concept of historic cultural landscape and its scope. The third part, focalizes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nagement and concept of the historic area. The last part, as a field planning,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landscape planning and architecture.

The result of analytical reviews is synthesized and used to suggest the major strategies and guidances for the future landscape in terms of physical, socio-cult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under consideration of Korean situations.

키워드 : 역사도심, 역사경관, 이탈리아, 가랏소법  
Keywords : Historic Area, Historic Landscape, Italy, Legge Galasso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거대도시는 도심 내의 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그 동안의 근대적인 산업공간의 재편을 통해 생산의 공간에서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능적 합리성의 강조로 획일화된 모습에서 이제 자연과 문화경관 회복을 통해 도시의 질적 측면<sup>1)</sup>이 강조된 도시경관으로 각 도시마다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까지 대규모의 도심 재개발사업이나 신도시 개발과 같은 성장과 양적 팽창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따라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정책이 수립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의 도시다움을 위한 정체성을 찾고 가꾸려는 각 지자체의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각 건축물과 지역 및 도시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 역사경관에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경관계획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 온 이탈리아의 시대별 역사경관관리 정책과 이에 따른 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의 특징적인 변화를 도출해 우리나라의 역사도심경관 계획에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 대상과 방법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주요 도시들의 도심지역에는 일상의 주거지와 역사적 유구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역사도심지 내 복합주거지<sup>2)</sup>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인 범위로는 19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관관리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획사례를 포함한다.

연구 방법은 역사경관 개념 고찰과 이탈리아 역사도심경관 관리에 대한 배경, 제도적 관리 차원과 계획적 특징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분석과 시대적 변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역사경관 개념

선행연구를 통해 역사경관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최형석<sup>3)</sup>은 '역사경관'을 문화재, 전통건축물, 고유의 건축양식을 지니는 건조물과 같이 미적인 기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1)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근대적 도시경관을 정형성, 투박성, 경직성, 자연미의 결여와 비인간성 등으로 요약하였고, 현대 도시경관에 대해서 풍성, 미적 세련미, 자연 및 지역 특색 지향성, 인간 지향성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도시경관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dward Relph, 『근대도시경관』, 태림문화사, 1999, pp249-278

2) 연구 사례는 모두 역사도심지 내 복합주거지역에 해당한다.  
3) 최형석, 「역사경관보존을 위한 건축물높이규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6권 1호, 2001

준, 전형성, 희소성, 역사적 중요성 등을 가치기준으로 하여 현행법 아래 보호되고 있는 경관으로 정의한다. 반면 이일<sup>4)</sup>은 문화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요소들 -가로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과 건축물,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들, 그리고 넓게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장소성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시킨다. 조성태<sup>5)</sup>는 문화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 생활을 통해 이루게 되므로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본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원형을 지켜가며 적합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속성을 갖게 되므로, 역사경관에 '문화'를 포함시켜 역사문화경관이라 범위를 확장시켜 정의하고 있다. 제17차 유네스코 회의에서는 '문화적 경관'을 세계유산의 일종으로 인식해 그 보호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인간이 자연에 대해 행하여 자연과의 사이에서 구축해온 물리적, 정신적 관계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소산'<sup>6)</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이 인간과 도시를 포함하는 환경을 의미하듯이 도시의 환경조건의 하나로 역사경관을 광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3. 이탈리아 역사경관 관리

#### 3.1. 경관계획 관리체제의 제도적 특성

이탈리아의 경관계획 관리는 도시를 포함한 지역환경 전체계획인 '경관계획, piano paesistico'과 '광역적인 경관계획, piano territoriale paesistico'을 통해 도시계획 전문가로부터 제안된 경관계획을 채택과 승인을 거쳐 구체적인 건축행위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도적 관리대상 차원에서 경관이 법제화 된 것은 1985년 가랏소법(legge Galasso)<sup>7)</sup>의 경관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공사업부 아래에서 주관되었던 개발, 건설행위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지역과 도시 관련, 주택과 건설행위관련으로 나누어 1865년 법2359호로부터 1971년 법865호 주택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환경부 산하부서에서 보존과 보호계획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역사적 문화재 관련, 자연 환경 관련으로 구분하고, 1909년 법364호로부터 1985년 법431호 가랏소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유럽 통합과 함께 EU 경관협약<sup>8)</sup>이 제정되어 지정지역의 경관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재를 투입하고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가랏소법 제정 후 이탈리아 전체 20개 주(州) 중 19개 주가 상황에 따라 각주의 도시계획을 수단으로 주, 현 단위의 광역계획에서 지방자치체 지구차원의 경관계획까지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주(州)차원에서는 주(州)광역조정계획, 주(州)경관계획이 있고 현 또는 대도시권 차원에서는 현 광역조정계획과 대도시권의 계획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시 마스터플랜이 있으며 지구 차원에서는 지구계획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스케일과 제도적 장치는 다양한 지역상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계획방침의 유형을 분류<sup>9)</sup>하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관리하여 양면적 특성을 상보적 개념으로 도시계획적 제도를 이용해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sup>10)</sup>

#### 3.2 역사도심지구의 지정

이탈리아는 19세기 말부터 중요 건축물이나 정원이 보존되어 왔으며 1939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1967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마스터플랜에서 '역사도심지구<sup>11)</sup>'를 면적으로 보호하는 계획을 세우는 제도를 확립하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한다. 결국 역사도심에 지정된 지구의 건물 공사에 대해서 문화환경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국이 문화적 측면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중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한 항목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sup>12)</sup>

### 4. 도심 역사경관 지역의 계획적 특징

#### 4.1 문화재 보호 단계의 역사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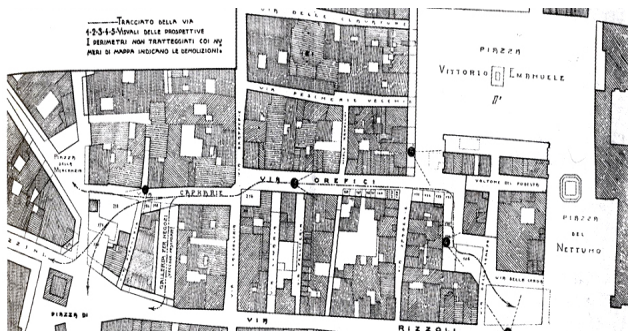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역사적 문화재의 복원과 관련된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 중에 메르칸찌아(Mercanzia)광장과 주변 재정비 계획(1909)은 알폰소 루비아니(Alfonso Rubbiani)와 팔티에로 폰토니(Gualtiero Pontoni)<sup>13)</sup>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는 이탈리아의 중부도시인 볼로냐(Bologna)의 역사도심인 메르칸찌아(Mercanzia)광장부터 네투노(Nettuno)광장까지를 시각적, 회화적 스케치와 마치 무대배경과 같은 광경으로 묘사하며 도심 역사경관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의 이론적인 배경은 한정적이고 소극적이거나 기존도시에 대한 시각적 분석론이 도시구성이론으로 관심을 일으키게 된 조르지에우제네 하우스만(Georges-Eugene Haussmann)과 레인하드 바우메이

4) 이일,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도심부 문화재 주변의 역사경관 관리계획안」,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05  
 5) 조성태, 「일본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6  
 6) 김란기, 「문화유산보호에 있어서 문화적경관의 새로운 전개」, 건축역사연구, 2005  
 7) 가랏소법은 당시 이탈리아 문화환경부의 정부차관에 의해 성립되어 법 431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본취지는 '경관계획 없이는 개발도 없다'로 환경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폭적인 개발제한은 파문을 일으켰다.  
 8)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www.pcl-e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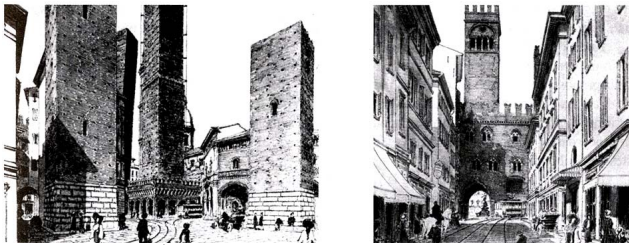
9) 보존, 보전, 개조, 신개발로 분류한다.  
 10) Yuko Nishimura,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태림문화사, 2003, pp 87-91  
 11) 이탈리아에서의 역사도심지구는 가장 엄격한 규제로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역사적 건축물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12) Yuko Nishimura, 위책, 2003, p115  
 13) M.Giambruno, 『Per una storia del Restauro Urbano』, citta' stud, 2003, pp 13-21

스터(Reinhard Baumeister)의 '도시계획의 규칙', 찰스 불스(Charles Buls), 카밀로 시테(Camillo Sitte)의 '회화적 미학분석'을 포함해 동시대 이론가인 구스타보 조반노니(Gustavo Giovannoni)의 영향에서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도심내 주거환경의 회복, 새로운 도로개설 등으로 기존 도시의 파괴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파괴로 도시의 문화재적 가치를 구하자는 의도로 문화재를 포함한 도심 속 광장과 그 주변의 재정비 방법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전역의 역사물과 역사물간의 시간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즉 문화재를 포함한 도시공간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는 건물들의 연속적인 실체로 파악해야 한다. 역사도심 경관계획에서 새것과 옛것의 관계의 회복<sup>14)</sup>을 위한 문화재 보존 위주의 경관계획이 진행됨을 종합할 수 있다.



a) 시각점 위치도



b) 시각에 따른 공간 인지분석 투시도

그림 1. Mercanzia광장주변 재구성 계획(1909), Bologna

#### 4.2 도심재정비 단계의 역사도심 경관계획

이탈리아의 역사경관 사업 중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도시구조와 조직에 대한 보전과 재생차원을 갖는 계획안으로는 산 피에트로(San. Pietro) 광장 앞 비아 콘칠리아짜오네(Via Conciliazione) 계획(1936-50)은 건축가 피아첸티니(Piacentini)에 의해 실행되었으나 레오나르도 베네볼로(Leonardo Benevolo)에 의해 그 역사성이 다시 재고되고 있는 계획<sup>15)</sup>이다. 산 피에트로 광장으로부터 카스텔 산타 안젤로(Castel Santa Angelo)에 이르는 보르고

바티카노(Borgo Vaticano) 전체 도시조직의 역사적 분석과 재평가를 통한 뭇솔리니(Mussolini) 시대에 오판된 도시조직의 반환 작업은 당시의 도시조직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서 출발되고 있다. 도시는 변화를 통한 점진적 성장으로 형성되고 항상 분명한 현실로 존재한다. 이에 도시민의 삶은 현실이고 이런 현실이 물리적 인문적 상황을 배경으로 고착됨과 동시에 시간의 진보 속에서 태어나고 변화 성장하는 도시조직으로 그 논리를 현실에 현상화 한다. 도시조직의 연구는 하나의 원형으로 지속해 온 것이 아닌 다양한 변화 속에 여과 퇴적된 켜를 밝혀 그 가치의 재평가로 발전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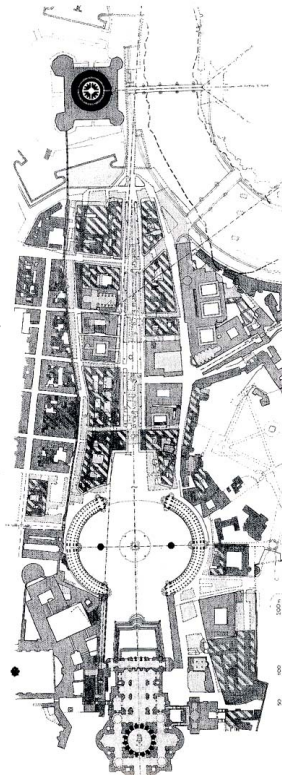


그림 2. San. Pietro광장 앞 Via della Conciliazione 계획(1936-50), Roma

따라서 본 계획안은 도시에서 역사적 도시조직에 대한 고려는 현재의 도시조직 연구를 통하여 그 속에 녹아있는 과거 도시의 역사성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도시조직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과정을 통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역사경관개념이 과거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도심재정비 차원으로 역사와 일상의 거주공간과의 동질적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단계로 확장, 발전되었다.

#### 4.3 역사도시화 단계의 도심경관계획

로마 시내의 비아 줄리아(Via Giulia)134a-136번지 계획(2001)<sup>16)</sup>은 파올로 마르코니(Paolo Marconi)에 의해 Via Giulia라는 르네상스적 부분맥락이 로마라는 전체의 복합적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안이다. 동질성의 유형적 표현이라는 20세기중반 이탈리아의 유형학은 계몽주의 이후 건축과 도시이론의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유토피아주의자들, 근대주의자들, 절충주의자들을 모두 비판하였으며 '유형'은 도시의 연속성과 역사성에 근간을 둔 효용의 기능과 순수기하학의 만남이다. 대표적 건축가로는 카를로 아이모니노(Carlo Aymonino)와 알도 로시(Aldo Rossi)가 있으며 그에게 도시는 기억의 집적이며 그 곳에서 집단적 기억을 추출하여 건축으로 구체화 현실화 하는 것이다.<sup>17)</sup> 유형을 건축의 집당성, 현실성, 역사

14) 1933년 역사적 예술적 문화재 보존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아테네 헌장 발표되었다.

15) Paolo Marconi, 『Il recupero della bellezza』, Skira, 2005, pp92-100

16) Paolo Marconi, 『Il recupero della bellezza』, Skira, 2005, pp10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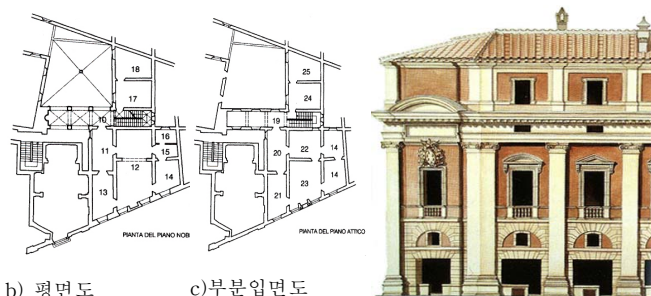
17) Aldo Rossi, 『L'Architettura della città』, 동녘, 2003, pp255-262

성이 관련된 문화요소로 보고 교차와 중첩을 통해 변형하며 역사적 산물로 현존하는 집단문화로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엮어 공식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형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요소로 인한 동일성을 형성하지만 이들의 차별성도 허용한다. 반복하며 지속하고 성장하는 그 현실성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집합적 현상으로서의 건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도시민의 삶과 문화를 축적한다. 유형학이 건축에서 도시로 공간을 형성한다면 도시조직의 형태논리는 도시에서 건축으로 공간을 형성한다. 도시조직의 형태논리와 건축의 유형학이 역사와 일상의 동질성을 찾아 생활공간을 연계하고 일상의 변용과 변형을 이끌어 내면서 그 경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르네상스적 도시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동질성의 유형적 표현이라는 역사적 체험이 일상의 장소내에서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한다. 이는 일상의 주거와 도시건축물을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는 유형화 과정을 거쳐 역사물과 일상의 삶을 융합시키려는 단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전체가 역사적인 과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게 되는 도시 전체를 살아 있는 역사도시화 시도를 의도하는 것이다.



a) 주변건물과 유형적인 관계를 갖는 입면



b) 평면도

c)부분입면도

그림 3. Via Giulia 134a-136번지 계획, Roma,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역사경관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역사도심 관리와 계획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여 여러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탈리아에서는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대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수행해 왔다. 즉 20세기 초기의 역사 유적의 복원과 역사가로 형성단계에서 세기 중반의 역사 경관 중심의 도심 재생단계 그리고 최근까지의 복합주거지를 포함한 도시자체의 기억과 역사를 살려내는 역사도시화 과정을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로 발전시켜 왔다.

둘째, 사례를 통해보면 도시의 역사경관을 살리고 지역정체성을 살려내기 위해 도시조직의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역사도심 관련 이론을 실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 장치와 다양한 스케일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시대별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역사도심의 보전적 측면과 재생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셋째, 역사경관을 생활공간 속에 살려내기 위해 도시의 연속성과 역사성에 기초한 동질성을 발견, 활용, 재생하였고, 역사적 유형으로 표현되는 '도시기억의 동질성'의 문제는 국가, 지역, 도시, 사회의 특수해를 가짐과 동시에 융통성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창출하였다. 역사경관보존이 개발의 대립으로서 보존이 아닌 개발의 부정적 요인을 수정,보완하는 '보존개념의 확장' 차원으로 서 성공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다양한 사례를 통한 구체적 변화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역사적 도시 전체적인 경관이미지에 대한 비교분석 및 삶의 질과 연계된 구체적 계획방향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역사경관은 단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담아 미래로 보내는 창조적 행위이다. 우리의 도시가 풍요롭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역사와 조직에 관한 후속연구도 절실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Sandro Ranellucci, 『Il restauro urbano』, UTET, 2003.
2. Mariacristina Giambbruno, 『Per una storia del Restauro Urbano』, Citta'Studi, 2007.
3. Edward Relph, 『근대도시경관』, 태림문화사, 1999.
4. YukoNishimura,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태림문화사.2003.
5. 최형석, 「역사경관보존을위한 건축물높이규제에 관한연구」, 국토계획 제36권 1호, 2001
6. 이일, 「장소적특성을 고려한 도심부문화재주변의 역사경관 관리계획안」, 한국도시설계학회추계 학술발표대회, 2005
7. 조성태, 「일본 가나자와의 역사문화경관 관리특성」, 한국 도시설계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2006
8. 김란기, 「문화유산보호에있어서 문화적경관의새로운전개」, 건축역사연구, 2005
9. Aldo Rossi, 『L'Architettura della citta』, 동녘, 2003
10. Paolo Marconi, 『Il recupero della bellezza』, Skira, 2005